



[산업] 신한금융 회장 직속 '문샷' 신설 디지털 혁신 사할 05



Life

[라이프] 찬바람 불고 기온 뚝 '월동준비' 나서는 편의점 업계 니



권익위 조정안 나오기 전에...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일주일 앞당겨 공원 지정안 논의 권익위 조정안 전 기습처리 논란

공원화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갈등을 빚어 온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방안이 7일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이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하순부터 양측의 조정을 진행해 왔으나, 조정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권익위 조정이 유명 무실해질 공산이 커졌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오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재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일정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15일에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어서 바로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을 전격 상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이와 같은 일방적 행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노력까지 모두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월 현금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5개 업체가 입찰 참가의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5월 말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6월 10일 1차 입찰 마감 시한까지 단 한 업체도 실제로 입찰하지 않았다.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민간이 이를 개발해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대한항공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서울시, 공공일자리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

전국 최초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도입 블록체인 기술 기반 비대면 계약 체결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내년에 공공일자리 사업에 전면 도입해 연간 1만5000건에 달하는 종이 계약서를 대체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해 보관 중이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연락처 등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 메인화면. /서울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체결이 완료된다.

'경력관리' 메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무경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취업 등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인증에는 서울시가 최근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인 '서울패스인증'이 활용된다. 비밀번호, 지문, 패턴과 같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쓸 수 있으며, 인증서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발급받고 관리할 수 있다.

4분기에 이뤄지는 전자근로계약 시범운영 대상은 서울디지털재단의 탄력근무제 희망일자리사업인 '서울데이터서포터즈' 참여자 216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간 분야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과 근무경력 관리에 사용토록 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동대문구 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동대문구 화목경로당 환경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북 제작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1동 화목경로당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화목경로당은 근력·인지능력 저하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계단과 경사로,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눈에 잘 띄는 색을 입혔으며, 현관에는 손잡이 일체형 의자를 놓아 신발을 갈아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했다.

휴식과 다과모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생활공간에는 입식 가구와 좌식 마루를 함께 설치해 입식과 좌식 중 이용자가 편리한 쪽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화목경로당 디자인을 위해 10여명의 노인으로 '시민체험단'을 구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화목경로당 주방. /서울시

성, 직접 이곳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개선된 디자인이 다른 시설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경로당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북'도 만들었다. 시는 앞으로 25개 자치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개·보수, 신·증축 시 이번 가이드북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한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으로 게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ON서울마켓' 진행... 소상공인 지원

시민 소비 촉진해 매출 증진 나서 소상공인 국내외 쇼핑물 입점 지원

서울시는 연말까지 온라인 소비 캠페인 'ON서울마켓'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시는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만개에 입점 수수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해 국내외 17개 쇼핑몰에 입점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11월 중국 광둥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쇼핑철에 맞춰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동남아시아 쇼피·라자다에서 국내 기업 300곳의 홍보와 판촉을 돕는다.

국내 쇼핑몰의 소상공인 기획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00원 쿠폰 10만장도 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 65곳에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도입을 위한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내 상점 96곳을 선정해 온라인몰 구축과 마케팅 등을 돕기로 했다.

12월에는 유망 스타트업 100곳의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최대 80% 할인해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연말 스타트업 박싱데이'도 개최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 쓰레기 처리 해법 시민 토론회로 찾는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처리 해법을 찾고자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11~16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5.8%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찬성했다. 다만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했을 때는 찬성 비율이 49.9%로 떨어졌다. 또 응답자의 72%는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시는 시민 참여단 100명을 꾸려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은 가능한가?' 등 2개 안건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4 | 해질 / 18:05

10월 8일 (木) 음력 : 8월 22일

수도권 날씨 12~2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6/24
- 동두천 7/24
- 가평 6/23
- 양평 9/24
- 용인 12/23
- 평택 9/23
- 수원 12/23
- 인천 13/23
- 파주 7/23
- 서울 12/24
- 백령도 14/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